SPACE GRAND PRIZE 2020

“Warmth in Architecture: "Humanity”

(Transcripts from the competition topic presentation meeting)

Lim, Hyoung Nam Studio Gaon & Roh, Eun Joo Architects

**임형남:** 안녕하십니까, 가온건축 임형남입니다.

Lim Hyoungnam : Hello everyone! My name is Lim Hyoungnam of Studio Gaon.

**노은주:** 안녕하세요, 노은주입니다.

Roh: Hi everyone! My name is Roh Eunjoo

**임:** 저희가 다같이 모여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받았어야 하는데, 시국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어 굉장히 아쉽습니다.

**Lim**: I am little dismayed at the current situation not being able to explain our intention and further engaging the participants in a live Q&A session in person. However, with the seriousness of COVID 19 we had to reach out in this manner.

**노:**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주제일 수 있고, 다시 생각해보면 21세기에 얘기하기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설이 필요한 주제는 아니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의 실마리를 던지고자 합니다.

**Roh:** The subject matter we have proposed may appear plain and simple. It may further sound and in a sense obsolete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is subject is an anecdote, a fundamental attitude that architects shall keep in mind while practicing architecture. I do not believe this is a subject which requires further explanation. Nevertheless, as there maybe someone who has question on the subject; We have prepared this forum to open up our thoughts and further a greater discussion.

**건축의 온기 : 휴머니티**

**Warmth in Architecture: Humanity**

**임 :**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처음 이야기 할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죠.

인간을 담는 건축을 한다 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도외시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요즘의 건축이라는 것들은 보여지기 위한 건축, 혹은 상업적인 용도의 건축에 부합하기 위해 과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 인간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공간학생건축상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인간을 담는 주거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임했으면 합니다.

**Lim**: “Humanity” is a word that we the usual keyword when we first start talking about architecture.

We usually say we create architecture to accommodate human beings. However, we are somewhat neglecting this crucial factor at the present. For example, commercial buildings and other majority of architectural projects are becoming a statement to “be seen” and are designed more or less excessively to meet this objective.

At this point, I thought that we have to rethink the subject of human beings. Hence, the subject was chosen for the 33rd Space Priz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I request all participating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 above mentioned basic issues, rearrange their thoughts on what it would mean to reside and to be a resident. Furthermore, how to accommodate human beings throughout this project.

**노 :** 처음에 휴머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축계에서 흔히 다루는 몇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올린 것은 이집트 건축가 ‘하싼 화티’의 구르나 마을 이야기 입니다. 고 정기용 선생님께서 이 구루나 마을 이야기를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르나 마을 이야기는 하싼 화티라는 귀족출신의 건축가가 빈민층의 주거를 위해 고심하면서 만들어낸, 최저의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을을 만들어낸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건축에 있어서 휴머니티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었을 때, 배우 브래드 피트가 만든 ‘메이크 잇 라이트 재단'의 사례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 프랭크 게리 등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침수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을 하였고,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침수가 잦은 마을의 주거 형식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례이죠.

또, 아라베나가 작업한 ‘반쪽자리 집’도 있었죠. 빈민층에게 주거를 제공할 때 완성된 집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절반의 구조만을 제공하고 각자 원하는 집의 형태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주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제안했던 작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신선해 했었습니다.

**Roh:** There are several works that arise when architects first start discussing humanity. The first one that I recall is the “story of Qurna Village” by Hassan Fathy, an Egyptian architect. The book on the subject was translated by the late architect Chung, Gu Yon.

The Qurna village is a story about an architect of noble birth. Hassan Fathy created a village for the lower classes by facilitating only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This can be example of considering humanity in architecture.

To cite other examples. Making Right foundation created by no other than the actor Brad Pitt. The foundation was in part an effort resolve the housing issues after hurricane Katrina’s devastation. Frank Gehry and other recognized architects were invited to propose new housing typology for the area. At the end three proposals were selected as a viable means to address the floods and its context.

Another example would be “Half a Good House” by Aravena. He suggested of constructing a half-completed house. The rest would be configured and completed by the end-users. This is a new and fresh idea. The end-user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completing their respective dwelling.

**임 :** 하지만, 현재 건축에 와서 주거를 생각할 때, 사용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주거가 많이 나오죠. 이를 테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 공간은 사용자를 염두 해 두고 설계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평균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용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공급자가 제공한 공간에 자신의 몸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라베나의 작업이나 구르나 마을에서의 작업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신의 몸에 맞춰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하나의 건축이 된 것이죠. 그 과정은 좋은 일이면서 또한, 굉장히 바른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거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im:** But, if we look around the present situation on residential architecture, there is a very limited space to accomodate the actual end-users’ thoughts on design and function. Almost every decision is made by the developers.

The result of such circumstance are the controversial apartment buildings, where spaces are not designed for the end-users. The apartments fulfill the average accepted standards for an unspecified individuals. Therefore, the end- user has to adjust their lifestyle to the ready-made spaces that the developer has provided.

On that point, Aravena’s Half a good House or Quran village are prime examples that show how the end-users actively engage in designing their own environment. The spaces they create facilitates their needs and the way they live. This optimal process creates architecture that belongs to the people. I think this process is a good and correct way of how architecture should progress. Furthermore, it would be the correct way for residential architecture.

**건축의 재료 : 생각과 시간**

**Materials for Architecture: Thought and Time**

**노 :** 그러면서 우리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의 재료는 뭘까요? 건축의 재료는 콘크리트, 철, 유리 등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재료는 ‘생각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Roh :** And then we cannot but to talk about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in architecture. What would be the material to use in architecture? There are so many materials in architecture, such as concrete, steel, and glass, etc. But, I think the best materials we have are “thoughts and time”. It may sound too abstractl but what would be this “thought” in reality?

**임:**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집을 놓고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 곳에 대한 생각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물리적 환경과 여러 편의성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따져야 할 것들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고, 자연에 대한 생각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장 바닥에 깔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하나의 편의성과 가족들의 기능이 쌓여 벽체를 세우고 건축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저를 이루는 것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Lim :** “Thoughts” in reality; if we consider the case of a house, this thought would be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n family and land. It is the thought about the land where we build the house, and further thoughts on the future of our family. I think the accumulation of these pieces of thinking completes the house.

So, when we build a house, before considering an appropriate physical environment and various conveniences,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uman being who lives there and the surrounding context. It may perhaps sound too much like a textbook story but the abovementioned is the real foundation of it all. On this foundation we construct walls, configuring conveniences, and functions for the family completes the architecture. Therefore I think, “Thoughts” are perhaps the most important and basis for architecture.

**노:** 또, 시간이 담긴 건축이라면, 과거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보여주는 건축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을 던져 드리는 거예요. 방금 지은 따끈따끈한 동시대성을 갖는 화려한 건축만이 좋은 건축이 아니라, 시간을 담고,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안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건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축에 담기는 시간이란 어떤 것 일까에 대해 이 공간학생상 작업을 통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생각과 시간’ 이 두 가지를 건축에 담아야 할 중요한 재료로 말씀 드렸습니다.

**Roh :** Again, if I mention architecture that contains time; it may lead to thoughts of it being a remodeling or renovation of an old building. However, it is not.

I want to give the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think over, and question architecture that contains, and convey “time” in it. I personally prefer architecture that conveys and gives an essence of tim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Rather than it being flamboyant ‘hot’ or ‘tre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If I may further suggest, for the student design competition; I ask all the participants to seriously consider and ask, “What is time” and how it’s delt with in architecture while you prepare your proposals. So, I give you two important materials “Thought and Time” which has to be included in the design of architecture.

**변화하는 주거의 모습에 대한 고민**

**Concerns on the present transformations in housing.**

**노 :** 또,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 해야 할까 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고민 또한 담아야 할 것 같아요.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하면 50%의 인구를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주거에 담긴 가족이 4인 가족으로 고착된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JOA 아키텍의 쉐어하우스 작업에서 보면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모여 사는 주거형태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있습니다.

**Roh** : And participants will also have to inquire the questions on how to deal with present lifestyle changes in housing design. The sum of one person and two person per household will take almost 50% of the overall population. It was not that long ago when the norm was four people per household, which occupied one single unit of a house. That was common and a given fixed concept. However, things have changed. If I may refer to a share house by JOA architects, the project incorporates the notion on how one lives and lives together with strangers who are not their respective family.

**임:** 예전에는 3대가 사는 집이 가족의 기본 이였다면, 현대를 넘어오면서 4인가족 정도가 한 가족의 단위로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족의 개념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령 혼자 살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혹은 모여서 조합주택을 만들고 살아가는 주거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쉐어 하우스처럼 다양한 주거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의 흐름이 건축에 반영되어 같이 녹아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생각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주거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가족의 개념은 어떻게 바뀔 것 인가. 또, 그런 생각들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것 인가 하는 여러 생각들이 다듬어져 건축에 녹아 들어간 작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Lim :** In the old days, it was common for three generations to live in one house and it was an accepted standard. However, in recent past we started to think one family unit consisting of four people as a standard unit. Now that common understanding has also rapidly changed as well. For example, there are increased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with a pet as well as cooperative housing.

And there are lots of experiments underway on further diversifying shared house typology. The experiments are not undertaking on purpose but as result of social trends in architecture and naturally occurring phenomena. How will the shape of housing be transformed? And how about our concept of family? Those changes will be reflected in architecture. We hope to receive proposals that will reflect on these thoughts on the changes, with refined ideas.

**노 :** 가족의 확장과 더불어 집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강릉의 ‘선교장’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인 건물인 사랑채와 안채에서 시작해, 늘어나는 가솔들을 반영을 해 큰 집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주거형식 이였다면, 지금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친족이나 친척의 범위에서부터 심지어는 반려 동물에 이르는 범위까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독주거나 기본적인 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집합적인 주거형태, 공동주거의 형태로 제안을 한 것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앞으로의 주거가 수용해야 하는 인간적인 삶과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범위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 인가. 예시로 들었던 아라 베나의 ‘반쪽자리 집’처럼 형태적이고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주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축적인 제안도 좋고, 혹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어떻게 주거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좋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돈을 내고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들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스미스의 ‘작은집’ 사례 같은 경우처럼 스스로 집을 짓고, 트럭에 집을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것도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h :** We can find an example of adding a new building to the existing housing to cope with the increase in family members at old residence “Sun Gyo Jang”.

In the past as the family member increased, the amount of dwelling units on the lot also increased. To accommodate the growing family. New residential units were attached to the existing main residence (An Chae) and the men’s sleeping quarters (Sarang Chae). This was the traditional way of increasing spaces for living. At the present, we have to rethink the notion of the family and to what extent be considered as family (including relatives and pets).

One of the reasons we are asking for a collective/communal type housing, and not a typical conventional single detached housing or traditional residence, is that we want to hear inputs from the participants’ respective thoughts on the notion of family. Furthermore, this would entail thoughts on human life, lifestyle, and other values the house should embrace.

To summarize, the following are what we are curious about and want to know. How far the housing type will change in the future. Like the “Half a good house”, the participants could suggest physical, structural, and architectural ideas on the future residences. Or, further suggestion on the residence of the future that will embrace, accept, and melt the swift changes concerning social conditions; and perhaps even how we should change the existing notion of settlement.

At the present, the younger generation have concerns and fear of buying or building their own house. Nevertheless, as the case of Christophe Smith’s ‘Small House’ shows, one can even build a house on mobile platform. Built on a truck, one could travel anywhere they desire. This also could be a solution in solving the housing problem.

**임 :**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어 헷갈릴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올바른 주거의 방향은 무엇이고, 기존의 것들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예측과 자신의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되어서 저희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생각을 공유했으면 하는데 동영상으로 말씀 드리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 생각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건축의 미래인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면서 우리나라 훌륭한 건축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간학생상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호화롭고 화려한 테크닉에 치중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정리 하는 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어떻게 건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례를 많이 찾아 보시면서 질문을 던져 주시면서 작업을 진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im :** For fear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after giving so many examples, let me clarify. Our intent is to inquire afer the right direction for housing design; What can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typology. We ask the participants’ prediction and thoughts on housing in well-organized manner.

Again, we wanted to discuss our thoughts directly in person with the participants but, as the situation did not allow, we sought a recorded video as a medium to convey topic. We regret that we could not communicate fully. We encourage everybody not to hesitate and post queries on the board. We will earnestly prepare and clarify our thoughts together.

**규모와 사이트에 대한 제한**

**Limitations on the size and site**

**노:** 규모나 사이트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가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의 도시가 사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리고 도시에 대한 생각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주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Roh :** We do not want to apply any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ize of the building and site. This is because that site can be near your community and / or somewhere in a foreign country. Our main intent is to allow more freethinking on housing. So that the city and architecture can be studied in multiple perspectives and various ways.

**질의응답**

**Question & Answer**

**노 :**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의문이 생기신다면 질의응답에 많은 생각들을 올려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h :** Upon watching the present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post many of your thoughts and queries on the Q&A board. We will reply in detail as much as possible for clarification. In addition, bear in mind that the topic is an opportunity to think on a broader context.

**임 :** 현재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여러분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건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작업과 좋은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Lim :** I hope the present crisis is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n open discussion over the subject. I wish for your successful project and brilliant ideas.

**노 :** 무엇보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무사히 제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oh** : Above all else, please take care of your health and we wish all the participants be able to submit without any mishaps.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